불교를 넘어 세계서 우뚝 선 '희망 훈장'

만해 대상 20주년, 의미를 되짚다

만해 대상은 한국 사회의 무수한 단체들이 수여하는 상(賞) 중에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청년이 된 '만해대상'은 평화상부터 실천상·문예상 등 각 분야서 가장 뛰어난 역할을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 제정한 상이지만, 이들은 종교와 국경, 민족을 넘어선다.

20년의 시간동안 105명(곳) 수상자 및 단체가 나왔고, 수상자 배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6곳에 이른다. 이중 외국인 수상자(단체)는 36명(곳)이다.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월레 소잉카, 시린 에바디, 모옌 등이 만해대상을 받았다.

만해 사상 선양을 위해

만해 대상은 이름처럼 만해 스님의 애민 정신과 생명·평화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백담사 회주 무산 오현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한 만해 대상은 1997년 평화상, 실천상, 학술상, 포교상, 예술상 5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됐다. 1회 수상자로는 △평화상 조영식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장 △포교상 숭산 스님 △실천상 가톨릭농민회 △학술상 이기영 박사 △예술상 이반 덕성여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규모는 성장했고, 특히 평화부문은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등을 잇달아 수상자로 선정하며 세계적 상으로 위상을 높였다. 달라이 라마는 "만해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방한은 성사되지 못했다.

만해 대상의 의미를 더한 것은 1999년부터 함께 시작한 '만해축전'이다. 1999년 8월 13~16일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만해축전은 한국문학 심포지엄부터 '만해문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까지 다채롭게 열렸다. 이 같은 만해축전은 매회 주제를 달리하며, 만해 사상을 문화·학술·사회적으로 적용·발전시키고 있다.

1997년 첫 수상자 배출

종교·인종·국가 넘어선

105개 수상자·단체 나와

1999년 축전과 결합하며

만해 사상 선양 '진면목'



숫자로 보는 만해대상 20년

105 총 수상자(단체)

26 수상자 배출 국가(한국 포함)

36 외국인 수상자(단체)

6 노벨상 수상자(김대중, 넬슨 만델라, 달라이라마, 월레 소잉카, 시린 에바디, 모옌)

5 국가원수급(김대중, 넬슨 만델라, 달라이라마, 엥흐바야르, 봉고 온딤바)



1997년 열린 제1회 만해대상 시상식



2015년 열린 제 18회 만해대상 시상식

오랫동안 만해 대상과 축전의 실무를 맡아 온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만해 대상은 생명·평화사상과 문학 등 만해 스님의 넓은 스펙트럼의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라며 "수상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시상하는 이유도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만해대상 변화와 발전

만해대상과 축전의 위상이 높아지자 주최의 규모도 변화가 왔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에는 강원도와 인제군, 동국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조선일보사가 주최단체로 들어갔다. 특히 동국대는 2013년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운영한 만해마을을 무상증여 받았다. 당시 '무상증여'를 결정한 무산 오현 스님은 "그동안 만해마을을 건립해 만해스님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스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1기 졸업생인 만해 스님은 동국대를 상징할 수 있는 분으로,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동국대가 스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 계승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청년기가 된 '만해 대상'을 유지·발전 시키는 것은 이제 공동의 몫이 됐다. 오원배 만해축전추진위원장은 "만해 대상은 만해축전과 결합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이 됐다"며 "'자유·평등·평화상'은 만해 사상의 핵심이다. 이를 '어떻게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학생 1:1 후원

사찰당 매월 10만원씩 2년간

(재)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최초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가 9월 5일 개교를 앞둔 가운데, 아프리카 학생을 후원하는 '한 사찰 한 학생 인재 키우기' 사업이 시작된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사찰 1곳이 한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씩 2년간 결연 후원하는 '한 사찰 한 학생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사찰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학생들의 교육·보건·의료·숙식·교복 및 학용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부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또 부처님 자비 속에서 불교를 배워갈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먼저 오는 9월 입학하는 60명 학생을 대상으로 1차 결연하고, 2017년 신학기 입학생 6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행 측은 개인 후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참문의 (02)737-9595 농협 301-0112-9859-51

박아름 기자

"역사문화 파괴하는 서울시, 즉각 협의하라"

봉은사, 27일 서울시에 지구개발 보류 및 협의 요구

"한전부지를 포함한 서울시의 삼성동 일대 지구단위 개발이 이행되면 봉은사의 수행환경과 역사문화가 크게 훼손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인근의 개발에 대해 서울시는 봉은사와 즉각 협의하라."

서울 봉은사가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을 포함한 지구단위 개발 이행에 대한 협의를 촉구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현대차 개발을 비롯한 서울시의 개발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미터 안에서도 이뤄진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봉은사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행위가 법에도 저촉되는 만큼 주민대상 의견 청취 및 봉은사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봉은사는 7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에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는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 측은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으로 인근지역과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건축동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검토했다.

봉은사 집회에 앞서 강남구 주민들이 개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한전부지가 속한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사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총무국장 법원 스님 등 봉은사 측 대표단은 심의위 위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봉은사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개발현장과 봉은사까지의 거리가 불과 400여 미터"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위드아시아, 2016 합천 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협회 공동주최… 8월 5일 경남 합천서

원폭피해자협회 및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8월 5일 경남 합천서 '2016 합천 비핵·평화대회'를 개최한다. 피폭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에 공감하는 한편, 국내 피폭자들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고양시키는 자리다.

행사는 △비핵·평화 이야기 한마당 △비핵·평화 영화상영회 △비핵·평화 난장 △비핵·평화 터벌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핵·평화 이야기한마당'서는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허광무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박사가 '체르노빌에서 탈핵까지'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비핵·평화 난장'에선 원폭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평화 지문나무를 만들고,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사진으로 남긴다.

'원폭 71년과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 같지만 다른 하루'란 테마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사)위드아시아는 공동 주최하고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이 주관한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이 후원한다.

한편 합천평화의집은 8월 6일 오후 1시 합천군 율곡면 대야로 1313 1층서 '한국 원폭2세 환우 생활 쉼터' 개원식을 개최한다. 평화의집은 원폭 1세 생활 쉼터다.

합천평화의집 측은 "합천에는 원폭피해자 1세를 위한 유일한 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있다. 하지만 원폭피해자에 비해 정원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원폭2세 환우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입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원폭2세 환우들을 위해 세계 최초 '원폭2세 환우 생활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정관계·불교계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생명나눔에 써 달라"

익명의 스님, 2000만원 기부

익명의 비구니 스님이 "생명나눔운동을 위해 써달라"며 7월 26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측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익명의 스님은 오래 전 생명나눔 본부의 활동 취지에 공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한바 있다.

이 스님은 "기회가 된다면 후원을 통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생명나눔은 기탁금을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환자치료비지원 등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격려와 깊은 관심을 보내준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고, 생명나눔을 통한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제2차 평온 공개강좌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고통 & 병통 해탈법

• 공 개 강 좌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